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온 불멸의 업적

박 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중국인민해방군이 동북지방에서 불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건국의 첫 걸음을 뚫 매우 어려운 때였지만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지원하는것을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1권 363페이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꺼지고 지구의 서반구에 평화가 깃들었던 194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광활한 령토와 수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대지에서는 항일의 총포성이 몇기가 바쁘게 국공대결이라는 또 한차례의 대전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장개석도당은 항일전쟁이 끝나자 중국공산당과 그 영향밑에 있던 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국내전쟁을 일으켰으며 일제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강점지역을 넘겨받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동북을 타고났으려고 책동하고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혁명의 앞길에는 또다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주며 조중량국 인민의 전통적우의와 단결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을 조선혁명가들의 변함없는 립장으로 간주하시고 해방직후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도와주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정규적혁명무력을 창건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시던 나날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동북땅으로 보내주시였으며 사심없는 물질적지원도 주시고 해방작전에서 조선사람의 슬기와 용명을 남김없이 떨쳐 중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오도록 해주시였다.

력사에 길이 빛날 이러한 공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최대의 성의였고 최고의 혁명가적우의였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과 전투부대들을 지체없이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시여 위력한 군사정치적거점을 꾸려주신것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앞에는 전국해방을 이룩하는데서 전략적요충지대로 되는 동북지방을 위력한 근거지로 꾸리며 여기에서도 군중적지반이 좋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연변지구를 군사정치적거점으로 틀어쥐는것이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장개석도당은 1945년말—1946년초에 진행된 공산당과의 《담판》과 《협상》의 막뒤에서 동북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면서 수십만의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심양, 장춘,

사평, 길림 등 큰 도시들과 철도를 장악하고 송화강 동남쪽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장개석도당은 한편 이 지역의 토비들과 일본군패잔병들까지 끌어모아 동북민주련군에 대한 《토벌》에로 내몰았다. 장개석도당이 함선과 비행기로 장비된 수십만의 군대를 들이민것으로 하여 이 시기 갓 조직된 중국 동북지구의 민주련군은 실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북지방을 국민당반동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중국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출신의 우수한 군정간부들인 강건, 박락권, 최광동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동북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은 동북 각지에서 강력한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건설사업을 적극 방조하여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동북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북의 넓은 지역에 튼튼한 군사정치적기지들이 꾸려짐으로써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장개석국민당군의 대규모적인 공세를 막아내였으며 중국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동북해방전쟁의 첫 시기에 벌써 연변지구에는 길동분구사령부가 조직되고 그아래에 야전군, 보안대 등 군 3만명규모의 정규무력이 창설되었으며 각 현마다 공안대, 무장민병 등 반군사조직에 참가한 조선청년들이 무려 12만명이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 출판물에는 《10여만에 달하는 팔로군, 신사군부대들과 2만여명의 중국간부들이 조선인집거구역에 발을 튼튼히 붙일수 있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조선청년들이 당을 건설하고 혁명단체들을 결성하고 인민무장대오를 조직하고 사업기초를 다져놓고 국면을 타개한것과 같아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썼다.

중국 동북해방전쟁시기 길동분구사령부 정치주임은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강신태, 박락권, 최명석을 비롯한 조선동지들은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우리를 도와 연변의 당 및 정권기관과 대중단체들을 내오는데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요청에 의하여 조선동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연변지구에 우리 당의 지방단체를 조직해준것은 당조직건설의 기초를 쌓고 그 곳을 동북해방을 위한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다지는데서 전기를 열어놓은 사변이었으니 일찌기 공산주의자들의 호상지지와련대의 력사에 류례없는 특유의 지지성원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항일로간부집단이 파견되기에 앞서 조선동지들이 주력이 되어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수행한 그 거창한 사업들은 동북해방을 위한 근거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연변의 군사정치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게 한 거사였다.》고 회상하였다.

조선혁명가들과 조선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력한 정치군사적기지로 꾸려진 연변지구가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데 대하여 당시 이 곳에서 사업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강력한 포병련대와 공병련대를 비롯한 수많은 부대들이 조직되어 동북전선에 파견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일대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달려가 동북민주련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국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 참가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25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은 중국 동북지방을 해방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장춘, 길림, 사평, 금주, 심양해방전투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주체35(1946)년 4월에 있는 1차 장춘해방전투에서 박락권동지가 인솔한 2만여명의 조선인사단은 공격을 시작하여 5일만에 도시를 점령하고 1만 수천명의 적을 살상포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박락권련대장은 적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대오의 앞장에서 부대의 공격을 지휘하였다.

동북해방전투에서 수많은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으며 그들가운데는 폭약을 안은채 육탄이 되어 적의 포대를 까부시고 불뿔는 적화구를 몸으로 막은 전투원도 있었다.

전 동북민주련군 지휘원이었던 황옥청은 자기의 회상실기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되새기며》에서 《이렇듯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웅한 조선의 영웅전사들에 의하여 동북해방작전의 나날에 중요전투들마다 아군의 진격로들이 개척되었었다.》고 하면서 동북에 침입한 국민당군의 허리를 끊어놓은 사평전투에 대하여 《치렬성에서 쓰팔린그라드격전을 방불케 한 이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수많은 피끓는 조선의 남아들이 사평의 한치한치의 땅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목숨바쳐 승리를 가져왔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시가의 일목일초도 무심히 대할수 없을것이다.》라고 썼다.

당시 비행기들을 동북전방에 끌어들이어 해방군부대들에 대한 폭격을 직접 지휘한 장개석의 처 송미령이 《꼬우리방즈》(조선사람을 욕하는 말)를 모조리 죽이라고 악을 쓴것이 나 그후 장개석이 동북전쟁에서 조선사람들이 판을 쳤기때문에 졌다고 개탄한것은 조선인부대들의 혁혁한 무훈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

조선인부대들의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에 의하여 동북해방전쟁이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결속된 후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164사 사단장이었던 왕효명은 조선인부대장병들앞에서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연설하면서 《동북지방은 해방되었다. 조선사람들은 동북해방전투에서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군사가 많고 적은것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에 비하여 수자는 적었으나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동북지방을 해방할수 없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동북해방작전에 이어 관내에 진출한 조선인부대들은 수많은 전투들의 앞장에서 혈로를 개척하면서 전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갔다.

천험의 요새에 의거하여 저항하던 적들의 예상을 뒤집고 불의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이룩한 장강도하전투와 중경해방전투, 참대뚫배로 군함을 격침시키고 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해남도해방전투 등은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 결정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승리가 이룩된 대표적인 전투들이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 선혈을 뿌린 전투들에서 어느 한 조선인사단은 7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조선인민의 지지성원이 얼마나 영웅적이고 희생적이며 진정한것이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성원들은 조선동지들은 전투에서 언제나 돌격대의 역

할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주고있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다음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작전방안과 전략전술적대책들을 세워주시어 전선의 근본적전환을 마련해주신것이다.

1945년 11월에 이르러 동북의 정세는 중국공산당군대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조성되었다.

장개석도당은 수많은 인원을 동북의 《행정권접수》를 위하여 장춘에 파견하고 2개 군단의 방대한 병력을 산해관 서쪽계선에 진입시켜 중국공산당군부대들의 동북진출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군함과 비행기를 리용하여 남방에 있던 부대를 비롯한 30여만의 대병력을 동북에 진출시켰다. 그런데다가 쏘련군대는 장개석도당의 요구대로 동북지방에서의 철수기일을 연기하며 심양, 장춘을 비롯한 큰 도시들과 장춘철도를 국민당에 넘겨줄것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공산당군의 지휘성원들은 이런 정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었고 대원들속에서는 신심을 잃고 동요하거나 지어는 도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신의주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 료녕군구 사령원 소화의 긴급요청을 받으시였다.

자기 나라 수반도 아닌 위대한 수령님을 전장이나 다름없는 현지에 오셔달라고 요청하는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였다. 그러나 그것은 수령님에 대한 소화의 신뢰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것이였다.

그때 소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상봉을 자기의 큰 희망으로, 소원으로 여기였다.

한것은 바로 이 험악한 정세를 역전시키실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밖에 없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단동에까지 가시여 료녕군구 사령원인 소화와 정치주임인 소경광을 비롯한 지휘간부들을 만나시어 전선의 근본적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대책들을 명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면하여 해방군부대들은 적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도시들을 내어주고 적의 력량을 분산시키며 농촌지역에 강력한 근거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적후에서 대부대기동작전과 유격전을 널리 전개하여 적의 력량을 약화소멸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싸우다 정 곤란하면 백두산에 들어가라, 백두산은 당신들의 믿음직한 후방으로 될것이다라고 고무해주시고 그들에게 차후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동지방에서 적의 포위속에 들어있던 중국인부대들이 적을 역포위하고 새로운 작전을 벌릴수 있도록 전 부대를 신의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다음 초산, 중강을 거쳐 장백지구로 진출하도록 출로를 열어주시였으며 전용렬차를 따로 편성하고 직송으로 부대들이 신속히 조선을 경유하여 립강과 장백에 진출하도록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그 뜻깊은 모임에 참가하였던 황옥청은 《지금도 생각하면 주석동지의 말씀을 숨을

죽이고 듣고있던 우리 지휘성원들이 <아, 이제는 동북혁명이 구원되었구나. ...>라고 부르짖던 광경이 환히 떠오른다. 아군의 활로를 열어주고 초조와 불안에 싸인 사령부의 기류를 희망과 신심으로 일변시킨 그분의 지략에 접한 우리의 심중에 소용돌이친것은 망망대해에서 항로를 잃고 헤매이다가 등대를 만난 선원들의 심정그대로였다.》고 회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초봄 중국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 겸 길료군구 사령원인 주보중을 만나시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1946년 1월 소련군으로부터 장춘시를 넘겨받은 장개석도당은 즉시 군대를 비행기로 수송하여 장춘시를 장악한 후 소련군대가 장춘, 사평에서 철수하자 심양-장춘간 철도를 따라 철령, 사평계선으로 물밀듯이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사평계선에서 동북민주련군 중국인부대들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적의 포위에 들게 되었다.

백전로장인 주보중도 급변하는 정황에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북변 남양에까지 가시여 주보중에게 장개석군대의 공격을 저지시키며 사평계선에서 포위된 부대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시며 장춘해방전투(제1차)를 벌려 사평계선에서 포위된 동북민주련군 중국인부대들의 퇴로를 열어놓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장춘으로 말하면 장개석군대의 동북지구총사령부가 동지를 틀고있는 곳이어서 적들의 력량이 비교적 강한 곳이었다.

장춘해방전투를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적구상은 적들의 강력한 주력집단을 쳐서 적들을 소멸약화시키는것과 동시에 사평계선에서 포위된 동북민주련군 중국인부대들을 구원할수 있는 참으로 기발한 명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모택동주석과 중국공산당이 상해지구로부터 바다를 거쳐 동북에 파견될 팔로군부대들이 조선을 거쳐 진군할수 있게 해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부대들에 무기를 보내줄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10여만정의 무기와 탄약, 화약, 의약품 등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북련군측에서 신발문제를 해결하여줄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우리 나라의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다른 신발생산은 다 중지하더라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진흙탕과 자갈밭을 행군해가면서 고생하는 중국전우들에게 보낼 신발부터 생산할데 대한 긴급지령을 하달하시였으며 해당 공장로동계급을 발동하시여 작전과 전투에 절실히 필요한 성능높은 《황색폭약》을 다량생산하여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날 주보중을 만나시여 동북해방전투를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던 때를 회고하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 나라의 형편은 남을 도와줄만 한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 같은것은 아예 념두에도 두지 않았다고 교시하시었다.

사실 해방직후 우리 나라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새 조국건설을 시작한것으로 하여 실지 다른 나라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나라는 해방되었으나 우리가 넘겨받은것이란 식민지적편파성이 우심한 락후한 경제와 텅빈 국고뿐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포연속에 시달리는 중국인민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하기에 국민당군 동북지구 총사령이었던 두룰명은 1947년 7월 다른 나라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저들이 패전을 거듭하고있는 원인에 대하여 《적군(동북민주련군)은 확실히… 북조선인들로부터 무기 및 인재의 원조를 받고있다.》라고 우는 소리를 하였던것이다.

전쟁의 승패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략적통로를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시기 동북땅에 진출한 중국공산당의 정예부대들과 동북민주련군에 있어서 큰 난관의 하나는 병력과 군수물자수송을 위한 전략적통로가 없는것이였다.

당시 장개석국민당군대가 산해관을 점령한 후 이어 금주, 심양, 장춘 등 대도시들과 베이징-심양선, 심양-장춘선철도를 비롯한 주요철도와 도로들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부대들은 관내와 동북사이, 남만과 북만사이를 련결하는 통로가 막히게 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병력이동과 전략물자들의 수송, 부상병, 환자, 가족들의 소개를 제때에 보장할수 없었고 적지 않은 부대들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런 어려운 형편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경내를 리용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병력이동과 군수물자를 운반하도록 통로를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소화가 지휘하는 룡녕군구무력의 안산, 해성에 대한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그곳에 주둔하고있던 국민당군대의 한 부대가 반변을 일으켰다.

장개석은 동북지구 총사령인 두룰명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변부대를 소멸해치우라고 명령하였다. 두룰명의 동북군은 모든 힘을 다해 반변부대를 소멸하려고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반변부대는 조중국경연안으로 후퇴하였으며 압록강에 이르러서는 더 갈데가 없어 갈광질광하였다.

반변부대의 운명이 시간문제였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변부대가 우리 나라 령토를 거쳐 동부만주로 들어갈수 있게 길을 열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반변부대 병사들은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제는 살았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포와 신의주, 만포, 남양 등 주요도시들을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략적통로로 제공해주시고 열차와 자동차 등 운수기재들을 편성하여 병력과 물자들을 직송해주도록 하시였다.

중국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주체36(1947)년의 첫 7개월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동북민주련군측을 위해 21만t의 물자를 수송해주었고 그 이듬해에는 30여만t이 넘는 물자를 수송해주었다고 한다. 이때 조선을 통과한 인원은 주체35(1946)년 하반기에 18개 부대에 이르렀고 주체36(1947)년 9개월동안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동북근거지로 간 인원은 1만명이상이나 되였다.

중국의 한 출판물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공한 전략적통로가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논 커다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물자수송과 인원수송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에서는 우리에게 룡로와 수로 4개 선을 열어주었다.

첫째 통로는 단둥으로부터 신의주, 남양에서 도문으로 넘어가는 룡로였고 둘째 통로는 통화에서 집안까지 와서 만포로 넘어와 도문으로 넘어가는 룡로였는데 이 두 길은 조선북부를 통하여 남만과 북만을 연결하는 중요한 외랑이었으며 그때 동북이 전쟁으로 하여 갈라지게 된 조건에서 이 길은 아군의 전략물자와 인원들의 수송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남만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외 두 길은 대련—남포, 대련—라진 수상통로였다. 조선의 남포와 라진은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항구에 철도를 연결해놓고 수송하기가 매우 편리했다.

대련에서 배에 실은 물자들이 남포나 라진항에 도착하면 직접 철도로 연결하고 북만으로 수송하였는데 이것은 관내와 관외를 연결하고 대련과 북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우는 중국인민에게 돌려주신 진정에 넘친 물심량면의 지원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정세를 중국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 인민이 보내준 적극적이고도 사심없는 지원으로 하여 해방전쟁초시기 수세에 빠졌던 동북민주련군부대들은 전투력을 빠른 시일안에 회복하고 전면적반공격으로 넘어가 전국해방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정녕 지난 세기 40년대 후반기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여 마침내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 오성홍기를 휘날리게 하고 새 중국의 탄생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조종 두 나라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며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동북해방전쟁, 전략적통로